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7호 [루체 제23079호] 주제99(2010)년 5월 7일(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이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전동지, 제1부부장 주규창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이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임에서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임에서 태종수동지가 수행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과 인민들은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방문을 전행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료녕성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련시를 방문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장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국강동지가 호금도총서기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대련에 내려와 김정일동지를 친절히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를 또한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왕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철도부장 류지군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 료녕성 성장 진정고동지, 대련시당 서기 하덕인동지, 대련시장 리만재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료녕성, 대련시의 당,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국강동지를 만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리국강동지는 김정일성주석께서 1983년에 찾아오시였던 대련시를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를 호금도총서기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철도부장 류지군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 료녕성 성장 진정고동지, 대련시당 서기 하덕인동지, 대련시장 리만재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성, 시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여러 단위들을 참관하시고 새롭게 변모되는 대련시의 약경을 부각하시였다.

리국강동지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 다섯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신 것은 두 나라로 세계 대령도자들께서 키워주시고 마련해주신 조종친선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시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종조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리국강동지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인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대외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중국인민은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리국강동지는 호금도총서기를 비롯한 중앙령도집단은 종조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친명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고심어린 투쟁으로 중화대지우에

현대화의 새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대련시의 발전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료녕성과 대련시의 지도간부들과 인민들이 뜨겁게 맞이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리국강동지는 방추도빈판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서는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두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국강동지와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왕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철도부장 류지군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 료녕성 성장 진정고동지, 대련시당 서기 하덕인동지, 대련시장 리만재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성, 시의 지도간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로동계급들의 창조적로령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개변되고 있는 대련빙산그룹, 대련기판차생산공사, 료녕어업그룹, 대련설봉산업그룹을 참관하시고 조국력사에 남을 위해 한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운 그들의 투쟁성과를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

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

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

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

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

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면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

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혈사가족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의사관공실 부주임인 소장 판우비단장이 6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국방부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제806호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를 현대적으로 꾸려 전국의 본보기로 창조하였으며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현신성을 발휘하여 방대한 무연탄가스화대상건설을 짚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우리의 원료, 기술에 기초한 주제적인 비료생산의 대경사를 암울로써 사회주의의 강성대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4월 23일부터 26일까

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평양의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원이 최상의 수준에서 개선된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원의 일군들과 청년원들이 인민에 대한 협진적복무정신을 얻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그 운영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평양시에서 원립조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잘하여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할데 대해 말을 하였다.

통신은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전군철에 조선인민군 제 5 8 6 군부대 지휘부

를 방문하여 조선인민군 제 1 1 5 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군철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으며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착적인 관심

을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군철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으며

을 일일이 해야려보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5 8 6 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신 소식을 드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군철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으며

을 일일이 해야려보였다.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 있다.

통신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라의 『신화매일전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흡 7련대 청

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 1 1 5

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신 소식

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公报』와 북

위성TV방송, 인터넷드롬메지 『동

북당』, 방글라데슈신문 『블리

즈』,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

니터』,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

신문』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

철에 축하하시였으며 개선청년공

원을 돌아보신 소식, 오중흡 7련대

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 1 1 5

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신 소식

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조선인민군 제 5 8 6 군부

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

병들을 축하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향도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65년

자주로 존엄높은 불패의 당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사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도적 권위가 짙어져 있는 자주, 폭풍사나운 춘연한 낸대들에 승리와 영광으로 광휘롭게 수놓아온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찬란한 해일이 이 위대한 진리속에 얼마나 송엄히 어려웠는 것인가.

위대한 승리로 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궁지에는 65년 역사上有절두월이 자주의 원칙을 입안하게 견지하여 온 신념과 의지의 역사이다.

자주, 이는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운동의 역사자는 자주의 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물러서게 되고 두 걸음 물러서면 열걸음 물러서게 되며 결국은 혁명을 막지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적 원칙은 사회주의 위업을 끌까지 수행하려는 로동계급의 당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의 근본리적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원칙, 로동계급적 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하였으며 혁명적인 로선을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하였다.』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정치는 주체의 원칙을 구현하는 자주정치이다.

민족자주의 결여는 정치에서 파란만장을 초래한다.

자주적인 정치만이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파시하여온 우리 당의 승리적인 정체의 비결은 자주에 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전면에서 가장 확고하게 견지한 것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워업의 승리를 위한 보람찬 길로 이끄는 조선로동당의 결국은 혁명을 막지게 된다는 평도특징이다.

혁명적 원칙에서 탈선하지 않고 자주성이 없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며 선상착오를 모르고 오직 끝바른 승리의 궤도로만 풀달을 쳐온 위대한 당, 로숙하고 세련된 당, 강철의 당!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에 기초하여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지주정치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에 드립없이 판통되어온 신조였다.

지금으로부터 17년전 2월 어느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어느 한 나라 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기의 궤도에서 탈선하여 끝내는 사회주의의 붕괴를 초래한 일부 나라들의 침략한 교훈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민족자주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온 우리 혁명의로정을 지팡스럽게 들이켜보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그 어면 암력도 통하지 않은 로정이었다.

혁명은 누가 선율하지 않는다는 것, 혁명의 승리는 오직 자기 힘으로 투쟁하여 견지하여야 한다는 신조로 가슴 불태우시며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15년나마 세월이 흘러서야 겨우 계약되었던 설비들을 다 받을 수 있었다.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상기하시면서 만일 이런 식으로 질질 끈다면 이제 새로 건설할

공장의 설비를 10년동안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 신념을 훼버린 그 나라에 대해 한 걸음의 양보도 하여 용지 않으면 경에 하는 장군님이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의 혁명가들이 신념과의지가 빛나는 『적기』를 높이 부르시며 자주적발전의 로상에 단 한 걸음의 양보도 하여 용지 않으면 경에 하는 장군님이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세가 복잡하고 간고한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적기』를 부르며 철의 의지로 민난을 뿐고나가시였습니다.

나는 제가 하고싶은 일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본적도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굽신거친적도 없습니다!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할 어버이수령님의 공적을 후손만대로 전하고 수령님의 원원대로 주체의 강대국학원을 꽂아우시려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절대적이다.

경에 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 민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오늘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길로 험차게 진전해온 것은 우리 당과 함께 한 원쑤들의 책동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변함없이 주체의 가치를 높이고 틀고 수령님께서 계획하신 주체혁명워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정치경륜으로 세계를 진감하시며 주체혁명워업이라는 거창한 흐름을 시대와 역사의 한복판으로 이끄신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이 역사에 남긴 진리도 혁명적당에 있어서 민족주체는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것이다.

반체자주적립장이 견결한 우리 나라에 대한 원쑤들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하였던가.

이는 승리의 한길만을 풀기자며 걸어온 조선혁명이 세계정치사에 남긴 정의이다.

주체의 궤도를 풀기자며 내달리는 경에 하는 장군님을 훼버린 그 나라에 대해서 남긴 정의이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

리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인 주권과 신념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곧 예속과 망국의 길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자기의 주권을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이런 억척 같은 백두의 기상으로 뿐은 기수호의 혁사를 장엄히 계획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민족자주신념은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틀에 맞게 풀어나가신 민족만대번영의 정체리념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중해연 어느 한 나라의 판광도시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남의 품에 노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

길로 질주하는 마차를 방불케 하였다.

개방해놓은 판광업, 물질들이 풍어드는 외국판광객들, 늘어나는 매춘부와 거지들…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국가수민에게 판광업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제때에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한 금속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어느 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 어린 위대한 한생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 갈수록 더욱 뜨겁게 차넘치고 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며 으로 지나니 고한 생생한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이 땅에 인민을 위한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행운을 수놓아오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해빛보다 따사로운 그 품속에서 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만을 누려온 우리 인민이다. 오늘 남녘겨레들은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다며 그길에서 혁신에 불명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거룩한 생애를 한없이 경건한 심정으로 되새겨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집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이민위천을 좌우며 으로 삼으시고 한생에 대한 열정을 아끼지 않고 전개해온 그 영상은 그 영상은 분명 태양상이다. 일생을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우 터 르 면 우 터 를 수 록 주석님께서 쓰으신 위대한 업적이 이 어려지고 자애로운 그 사랑이 못 견디게 그리워 보고 또 보게 되는 그의 영상이다.

얼씨기 열네 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는 그날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파 거제의 행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주석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이민위천을 펼친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니 남녘인민들과 세인들의 절대적인 경모와 창종을 받으신 위인으로 동서고금에 없다.

제주도의 한 주민은 어느 날 저녁 집에 찾아온 이웃들을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을 진보와 번영의 높은 평민으로 옮겨세우신 위인은 없었다. 이민위천이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그런 수령. 그런 령도자는 세상에 오직 한분 인류를 위해 쌓으신 업적을 어찌 글이나 말로 데 헤아릴수 있으려.』

오늘 남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께서 지나신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에 접성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빛나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낸 한편의 수필에서 이렇게 글을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진을 보고 느끼니 자꾸만 손수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해빛 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그 영상은 분명 태양상이다. 일생을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우 터 르 면 우 터 를 수 록 주석님께서 쓰으신 위대한 업적이 이 어려지고 자애로운 그 사랑이 못 견디게 그리워 보고 또 보게 되는 그의 영상이다.

얼씨기 열네 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는 그날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파 거제의 행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주석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이민위천을 펼친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니 남녘인민들과 세인들의 절대적인 경모와 창종을 받으신 위인으로 동서고금에 없다.

제주도의 한 주민은 어느 날 저녁 집에 찾아온 이웃들을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을 진보와 번영의 높은 평민으로 옮겨세우신 위인은 없었다. 이민위천이

한 것이다.』라는 글이 실려 남조선인민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훨씬 짚고 있다.

인류사에는 생의 자주파 이름을 남긴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누구도 떠나지 못할 숭고한 인력과 끝까지 사랑을 지나시고 민족을 위해 온갖 희고애고를 품으시는 그 영복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김정일국방부장군, 참으로 그이는 민중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민중의 마음다운 수령이시고 민족중심의 애민정치로 민중에게 단복을 주시는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중에 대한 찬양과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시고 우리 민족을 부강번영으로 이끄실 민족구원의 유일한 령도자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이서 애밀로 사랑과 믿음의 최고화신이시고 역사가 처음보는 위대한 애민의 정치가이시다.』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령도자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모시고 밟으러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모두를 한풀에 품으시고 행복과 번영에 이끌어온 장군이며 민족의 앞날은 장군께서는 이민위천을 쓰고 뜻이 혁명적이고 깊은 그 사랑. 그 은정속에서 이 땅에 인민의 태원이 솟아나고 행복의 노래 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져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모두를 한풀에 품으시고 행복과 번영에 이끌어온 장군이며 민족의 앞날은 장군께서는 이민위천을 쓰고 뜻이 혁명적이고 깊은 그 사랑. 그 은정속에서 이 땅에 인민의 태원이 솟아나고 행복의 노래 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져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

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김일성주석님의 앞길은 언제나 행복과 번영만이 있을 것이다.

고 혁철

민족대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신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업적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여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나를 있는 고귀한 단결의 전통을 선포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보고한 뜻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파 규약, 조직체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조국광복회는 동동자, 농민 등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혁명조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의 혁방을 위한 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자주독립을 이루어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이서 애밀로 사랑과 믿음의 최고화신이시고 역사가 처음보는 위대한 애민의 정치가이시다.』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령도자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모시고 밟으러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은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주체의 반민족적로동정책이 빛어번 혈설이다.

어디 그뿐인가. 보수폐당은 『로조련조동자들에게 자신의 명절을 축복해주시며 근로의 기쁨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울분과 파쑈당국의 유품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되어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에 걸친 조선인민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본사기자

설로 민족의 단결로 승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 안겨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파란시기였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북남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완전격제 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책동이다.

삶의 노래로 되어야 할로동 생활이 그대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되는 사회, 분별된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과 고난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이 남녀노소, 직업, 사상, 성정, 신앙, 민족, 당파 등의 차별없이 망라

